

(764)

조선

주제 109
(2020)

3



차 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1
백두의 형곡길 이어가자	2
중 평 땅 의 새 모습	6
망덕온천문화휴양지를 찾아서	10
지 하 절 경-룡 문 대 굴	14
대학이 자랑하는 녀성박사들	18
녀성 근로자들의 일터	20
날을 따라 발전하는 로선의 공중교예	22
잊지 못할 방학의 나날들	26
서리꽃 핀 리명수	28
철새들의 보금자리	30
부포바다가의 흐뭇한 작황	32
중앙독물원의 《교예배우》들	34
재능을 과시한 나 어린 연주자들	36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바둑	38
신형코로나비루스의 침습을 막기 위하여	40
새로 발굴된 고려초기의 석불상	4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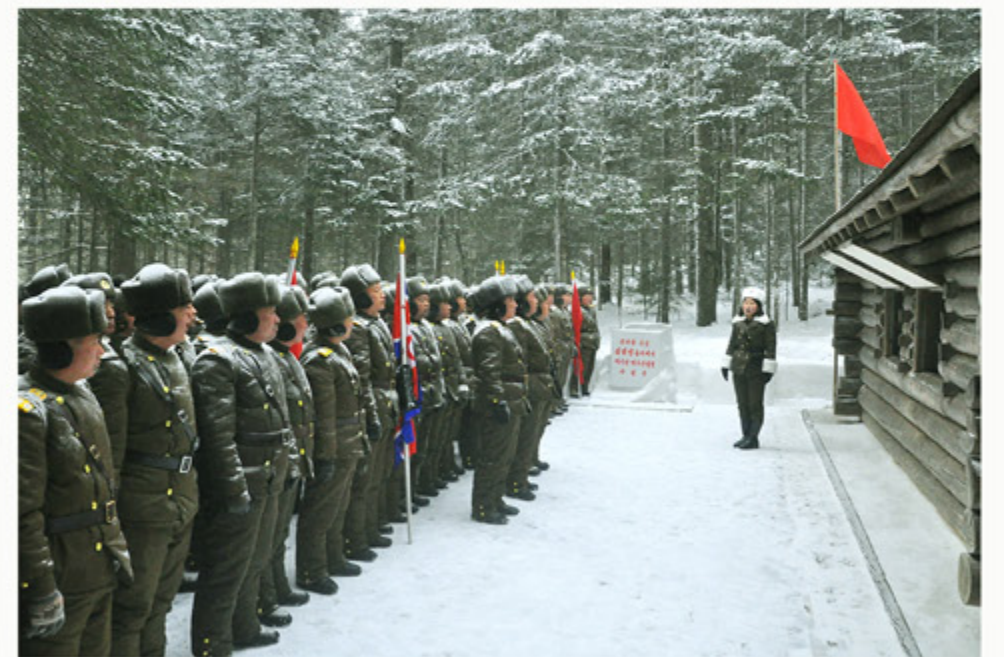




사진 홍 훈
변찬우
공유일
최충성

중 평 땅 의 새 모습





특색있게 건설된 수경온실과 토양온실들은 남새재배의 모든 공정을 자동조종할수 있게 되어있다.



조선동해연안으로 뻗은 철길을 따라 함경북도의 경성역을 가까이 하느라면 눈썹리 아득한 온실 《바다》가 펼쳐진다.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에 의하여 지난해 12월초에 준공된 중평 남새온실농장과 함경북도양묘장의 전경이다.
중평남새온실농장에는 300동의 반궁룡식2중박막온실을 비롯하여 모두 320동의 수경온실과 토양온실이 있다.
면적이 1 000㎡인 반궁룡식2중박막온실은 이곳을 비롯한 북부지대의 기후조건에서도 연료소비가 전혀 없이 생산활동을 벌릴수 있게 하는

실리가 큰 온실이다. 내부로 규모있게 뻗어간 관들을 통하여 남새포기들마다에 영양물질을 공급하게 되어있는 온실들에서 진행되는 모든 관리 및 재배공정은 자동조종할수 있게 되어있다.
농장에는 유기질비료생산장과 파종작업장, 남새포장 및 판매소와 능력이 큰 남새저장고들, 남새기술연구실과 과학기술보급실 등도 훌륭하게 꾸려져있다.
지금 농장에서는 현대화된 남새생산체제를 원만히 관리운영하고 선진적인 남새재배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수확고를 높이는것과

함께 영양학적지표와 맛이 더 좋은 여러가지 품종을 선택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폭설 등에 의한 피해를 막고 도내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써온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지난 1월의 첫물남새수확에 이어 2월에 들어와서도 많은 호동들에 풍요한 작황이 펼쳐졌다.
온실농장과 잇달린 수신통보의 부지에 일떠선 양묘장에는 여러동의 현대적인 수지경판온실과 함께 야외재배장, 채종구, 원형삼목장, 풍토

순화용도입시험구 등이 꾸려져있으며 경기질생산장, 종자선별 및 파종장, 나무모저장고를 비롯한 시설들도 원만히 갖추어져있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해에 2천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있다.

사진 김성철
글 김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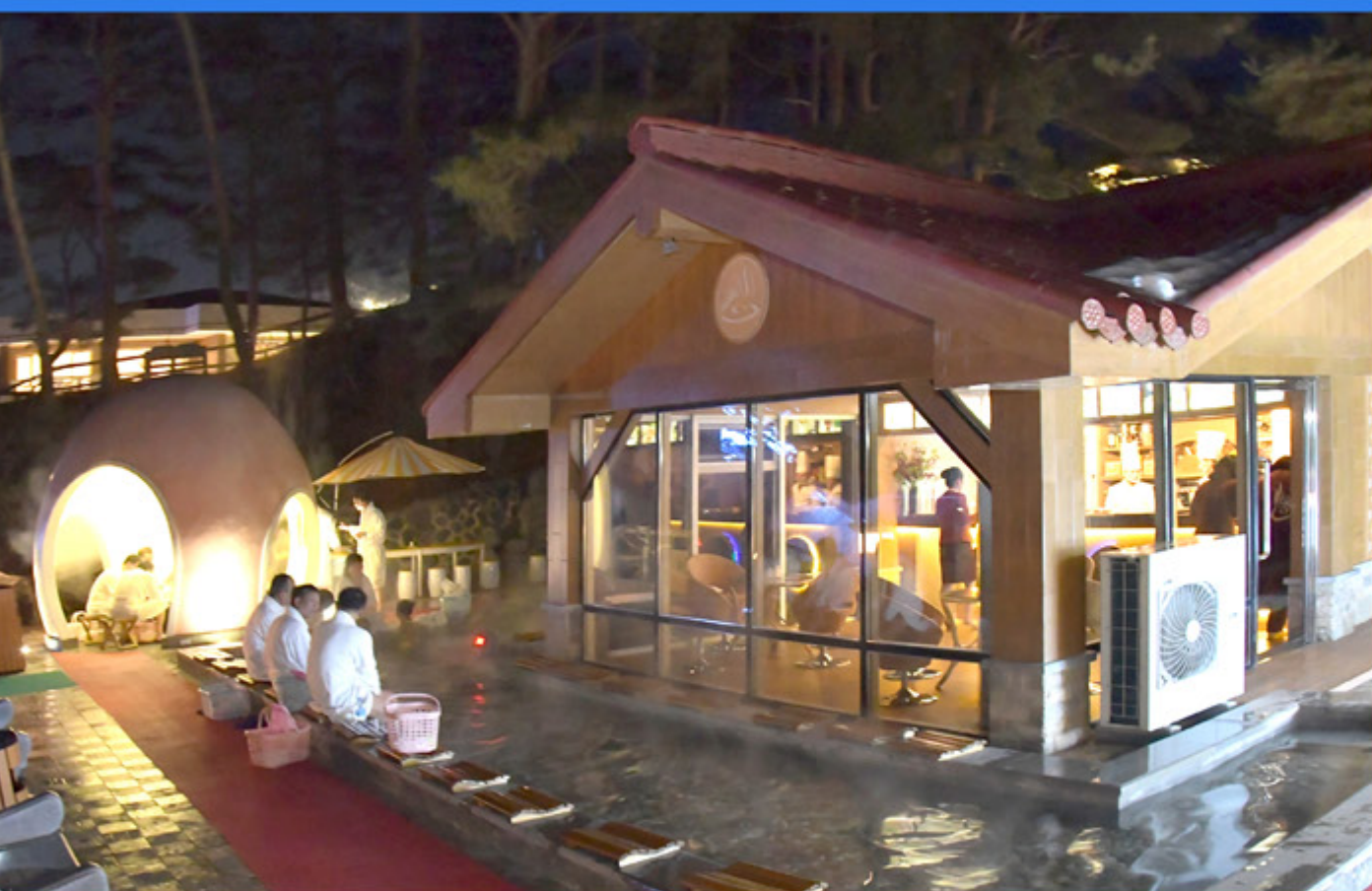
수신통보의 면적에 펼쳐진 양묘장에는 수지경판온실과 야외재배장, 경기질생산장, 종자선별 및 파종장 등 한해에 2천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과학적이며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할수 있는 시설들이 갖추어져있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찾아서

사진 공유일, 안철룡, 홍광남







지 하 절 경 - 룡 문 대 굴

평안북도 구장군 룡문로동자구에 조선의 지하
명승으로 손꼽히는 룡문대굴이 있다.

룡문대굴은 이 지구의 석회암층이 오랜 세월
에 걸치는 지하수의 용해, 용식작용에 의하여

커다란 동굴을 형성하면서 이루어진것이다.
2개의 원굴과 잇닿아 수많은 가지굴들이 뻗어



있는 동굴에는 관망대, 만물동, 풍년동, 석화
동, 백화동, 금강궁, 보석동, 형제동, 룡문광장을
비롯하여 아름답고 신비로운 절경을 자랑하는
20여개의 명소들이 있다.

지상의 경치를 모두다 안고있는듯싶은 이곳을
찾는 참관자들 누구나 예술작품과도 같은
동굴의 황홀함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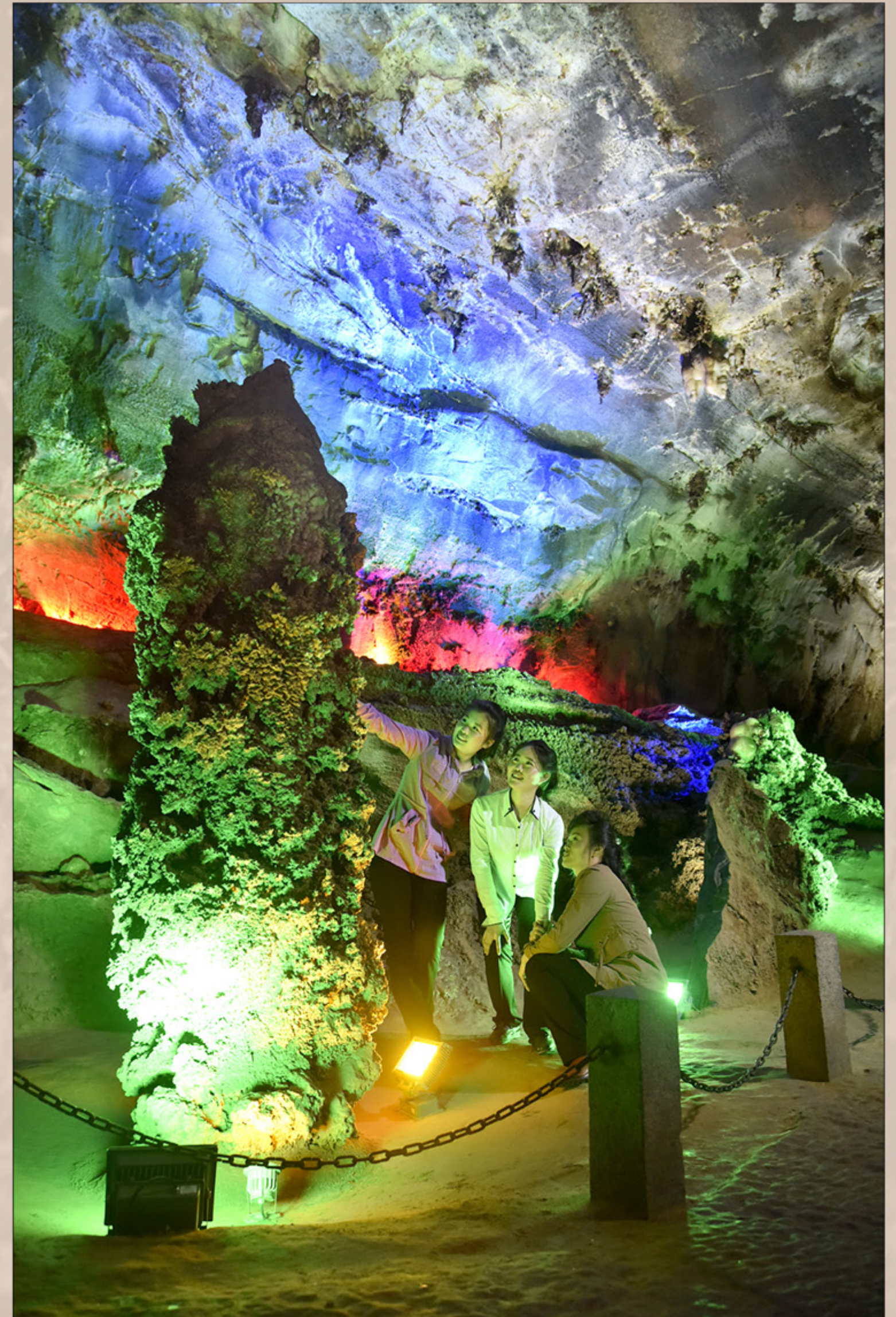
가지가지 명소들에 대한 안내원들의 친절
하면서도 해학적인 설명 역시 참관자들에게
즐거운 웃음과 함께 깊은 여운을 남기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박병훈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명소들에는 백학, 손, 돼지발쪽모양의 돌고드름과 돌꽃들이 있다.





대학이 자랑하는 여성박사들

사진 최원철, 글 김선경

산골소녀가 박사로

황명옥의 고향은 강원도 김화군 원동리의 산골마을이다.
중학시절을 마칠 때까지 기차는 소년단야영을 갈 때 한번 타보았을뿐이고 비행기는 구경도 못했다는 그이다.
그래서 무엇이나 모르는것이 없고 알기 쉽게 배워주는 선생님들이 제일 돋보였고 앞으로 자기도 꼭 교원이 되리라 마음다졌다.
그 결심은 김책공업대학(당시)에 입학하여 유능한 교수선생님들의 강의를 받으면서 더욱 굳어졌다.
하여 주체68(1979)년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교원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40여년 동안 교단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다.



기계과학기술학부 도학 및 제도강좌 교원 박사 부교수 황명옥

다문 박식가

채금순은 대학안의 수많은 교원들중에서 손꼽히는 다문박식가이다.
전공분야인 전기공학은 물론 여러 공학분야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있는 그의 강의는 언제나 청강자들속에서 호평이 높다.
그는 여러 첨단연구과제들도 훌륭하게 수행하였을뿐아니라 나노분야의 첫 과학기술도서를 편찬한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과학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도서들을 집필발행하는데서도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마크도안도 다름아닌 그가 창작한것이다.



교무부 지도교원 박사 부교수 채금순

부부교육자의 공저 안고

김혜원은 처녀시절은 물론 한가정의 안해로, 두 자식의 어머니로 된 다음에도 40여년을 교육사업에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바쳐오고있다.
교수사업을 위해 그가 집필한 10여건의 교과서, 참고서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뿐만아니라 그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단에 함께 서있는 남편 장의준의 사업도 적극 뒷받침해주고있다. 주체87(1998)년부터 20여년간 장의준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한데는 그의 적지 않은 방조가 깃들어있다.
장의준, 김혜원부부는 다같이 교수, 박사들이다.



외국어학과 영어2강좌 교원 교수 박사 김혜원

나노화학의 개척자



응용화학공학부 연구사 박사 부교수 김효영

40여년간을 연구사로 일해오고있는 김효영을 누구나가 존경하고 따른다.
그는 금속의 표면처리기술을 새롭게 연구한것을 비롯하여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았다.
나노화학분야의 선구자의 한사람인 그는 여러가지 나노재료들을 연구하여 여러 분야에 도입하였다.
《나노화학》과 《나노재료화학》 과목들을 개척하였으며 《나노화학의 기본》, 《탄소나노재료》 등 20여건의 교재와 참고서들을 집필하였다.

새 교수방법창안의 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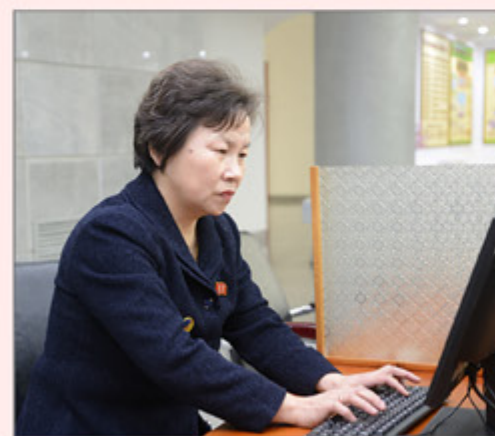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모범교수자들속에는 박경숙도 있다.
학생들은 무슨 문제이든 알기 쉽게 통속적으로 진행하는 그의 강의를 모두가 좋아하고 언제나 기다리곤 한다.
이를 위해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을 습득하는것과 함께 능숙한 강의술을 체득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그이다.
그 과정에 20여건의 새 교수방법들을 창안하여 내놓았으며 사회과학부문의 수많은 교과서, 참고서들을 집필하였다.



사회과학부 주체철학강좌 교원 박사 부교수 박경숙

대를 이어가며

대학의 공업경영학부에서 강좌장이었던 교과서, 참고서들을 집필하였으며 나라의 아버지처럼 교원이 된 김순희는 주체99(2010)년부터 강좌장으로 일하고있다.
그는 주체75(1986)년에 교단에 선 때로부터 그는 두 딸도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단에 세웠다.



정보과학기술학부 컴퓨터체계강좌 강좌장 박사 부교수 김순희



여성 근로자들의 일터

대 동강반의 미래 과학자거리 가까이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이 위치하고있다.

과일나무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
들이 우거지고 도처에 아담한 휴식터들이 있는
공장의 구내는 하나의 커다란 정원이나 공원을
방불케 한다.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생산현장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여성들이다.

하루의 노동시간을 마치고나면 목욕탕과
미용실을 비롯한 후생시설들은 물론 수영장도
있는 진달래원이며 규모있게 꾸려진 체육관과
문화회관 등이 그들을 기다린다.

공장에는 여성종업원들의 자식들을 위한

탁아소와 유치원도 있다.

생산현장과 거리를 두고 진달래원과 나란히
서있는 7층짜리 노동자합숙은 주체106(2017)년
에 세워진것이다.

합숙의 1층에는 대중식사실이, 2층에는 체육
및 오락실이 꾸려져있다.

3층부터 7층까지의 매 층에는 8개의 호실

들과 함께 미래의 어머니, 가정주부로 될 합숙
생들을 위한 조리실습장들이 있다.

하기에 자기 공장에 대한 이곳 여성근로자
들의 자라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진 안철원

글 강수정





날을 따라 발전하는 조선의 공중교예

공중교예는 조선인민들속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예종목의 하나이다.

조선의 공중교예는 주체44(1955)년에 창작된 체력교예 《공중비행》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배우들의 비행거리는 대체로 2~3m였

으며 공중에서 두바퀴반을 도는것이 제일 고급한 동작이었다.

1970년대부터 작품들이 새롭고 독특한 형상과 난도높은 기술동작들로 구성되면서 조선의

공중교예는 급속한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남, 녀배우들이 여러개의 그네와 비행틀사이

를 비행하면서 수행한 각이한 전회기교들과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련쇄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동작들은 관중들의 찬사를 불러일으켰다.

비행거리는 12m이상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창작된 공중교예작품들은 《쌍그네 비행》, 《날아다니는 처녀들》, 《날으자 더 높이》 등 10여편에 달한다.



주체44(1955)년에 창작된 체력교예 《공중비행》



주체70(1981)년에 창작된 체력교예 《공중그네비행》



주체71(1982)년에 창작된 체력교예 《3단비행》



제11차 중국오교국제교예축전에서 체력교예 《다각비행》이 금사자상을 수여받았다. 주체96(2007)년



제12차 중국오교국제교예축전에서 체력교예 《날으자 더 높이》가 금사자상을 수여받았다. 주체98(2009)년



제39차 몽테 카를로국제교예축전에서 체력교예 《쌍그네비행》이 금상을 수여받았다. 주체104(2015)년



제4차 휘케라스국제교예축전에서 체력교예 《공중전회비행》이 금코끼리상을 수여받았다. 주체104(2015)년

조선의 공중교예는 세계교예무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주체70(1981)년 제5차 프랑스크제교예축전에서 체력교예 《공중그네비행》이 금상을 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몽테 카를로국제교예축전과 중국오교국제교예축전, 로마국제교예축전을 비롯한 수많은 교예축전들에서 조선의 공중교예작품들은 거의다 최고상들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주체72(1983)년에 진행된 세계교예 올림픽대회와 제8차, 제9차 세계교예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국립교예단 배우 김명봉은 주체101(2012)년 11월 체력교예 《정복자들》에 출연하여 공중에서 뒤로네바퀴돌아잡기를 수행하여 기니스 세계기록집에 올랐다.

오늘 조선의 교예배우들은 공중에서의 다섯 바퀴돌기까지도 수행하고있다.



사진 리진혁
글 김선경



제17차 중국오교국제교예축전에서 체력교예 《출진을 앞두고》가 금사자상을 수여받았다. 주체108(2019)년



잊지 못할 방학의 나날들

조선에서는 해마다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학생소년들의 겨울방학철이다.

올해에 교육부에서는 지난 시기처럼 학생들에게 방학기간에 일률적으로 주던 숙제를 없애고 자기의 소질과 희망에 따라 재능을 편마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계기를 보장해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여 온 나라 도시와 마을들은 방학을 보람 있게 보내는 학생소년들로 하여 더욱 활기를

띠었다.

각지의 학생소년궁전들과 학생소년회관들은 한가지이상의 재능을 편마하기 위해 찾아와 열심히 배우고 체력을 단련하는 학생들로 날마다 흥성거렸다.

학교들에 조직된 다양한 소조들에서도 학생들이 각자의 취미에 따르는 여러 과외교육활동들에 참가하여 재간을 배우도록 하는것과 함께 견학과 참관, 등산 등을 통하여 쌓은 지식을

공고히 다지도록 하였다.

과학기술전당과 자연박물관에서만도 방학기간에 찾아온 학생소년들의 수가 이전에 비해 2배이상에 달하였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명승지들에서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며 견문을 함께 넓혀간 학생소년들도 많았다.

사진 홍광남, 글 문광봉



학생소년들은 자기가 선택한 소조들에 망라되어 배운 지식을 공고히 다지고 재능을 충분히 발양하고있다.





서리꽃 핀 리명수

량강도 삼지연시 리명수동에 있는 리명수폭포이다.

국가천연기념물인 폭포는 백두산천지에 시원한 물이 땅속물이 현무암의 틈사이로 흘러나오는 지하수폭포로서 사계절 물량과 물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절벽위에 솟아있는 정각밑에서 솟구치는 맑은 물이 빼주름히 솟아난 바위들에 걸려 구슬처럼 부서지면서 갈라지기도 하고 다시 모여 물줄기

를 이루기도 하는 폭포는 아래에 펼쳐진 호수와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있다.

겨울철이면 땅속에서 솟구쳐나온 물이 찬 대기와 접하면서 생긴 안개가 주변의 나무들에 하얀 서리꽃을 피우는것으로 하여 이 일대의 풍치는 더더욱 이채롭다.

사진 및 글 문진유





철새들의 보금자리

지난해 6월 평안남도의 문덕철새(습지)보호구에서는 진귀한 새로 알려진 저어새 30여마리가 관찰되었다.

따오기과에 속하는 이 새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중의 하나로서 그 마리수가 3 000마리정도밖에 안된다.

이 보호구에서는 그전까지 해마다 10마리정도 관찰되었다고한다.

청천강하류의 벌방 및 해안지대에 위치하고있으면서 동아시아-오세안주철새이동경로의 연결망지역으로 등록되어있는 이 보호구는 다양한 자연지리적조건과 풍부한 동식물상으로 하여 수많은 조류들의 서식지, 이동중계지로 되고있다.

현재까지 이곳에서 조사기록된 새의 종수는 240여종이며 그중 철새는 190여종이다.

사진 및 글 박영조



부포바다가의 흐뭇한 작황



황해남도 강령군 부포지구는 조선서해안의 이름난 바다나물산지의 하나이다.

넓은 간석지를 이루고있는 부포앞바다는 자그마한 만을 형성하고있어 양식업에 매우 적합한 자연지리적환경을 갖추고있다.

하기에 이곳의 바다연안을 따라 도처에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꾸러놓은 바다동식물양식장과 서식장들이 펼쳐져있다.

사업소에서 년차별로 늘어오는 양식장의 면적은 570여정보에 달하는데 여기서만도 다시마, 미역, 김, 굴, 섭조개를 비롯한 다양한 바다

동식물들을 자래우고있다.

최근 건강식품 및 의약품원료로서의 다시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가는데 맞게 사업소에서는 다시마모배양장의 능력을 더욱 늘이고 현대적인 배양기술들을 도입하여 생산장성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다시마, 참김양식장 등의 관리를 짜고들어 생산량을 부쩍 늘이는것과 함께 맛 좋고 영양가가 높은 새 양식품종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고있다.

또한 양식자재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재자원화하기 위한 사업도 내밀어 생산원가를 계속 낮추고있다.

사업소에서는 배수리기지를 개건하고 양식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설비들을 새롭게 갖추어 모든 양식작업들이 흥겹고 험하게 진행되도록 하고있다.

하여 해마다 수확철이 오면 양식장들마다에서는 풍성한 작황이 펼쳐지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최성순



사업소에서는 다시마, 김을 비롯한 바다나물들과 여러가지 조개류들을 생산하고있다.





중앙동물원의 《교예배우》들

평양의 대성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중앙 동물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수족관옆에 꾸려진 물개재주장을 그저 지나치지 않는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물개, 물범들의 교예 《공연》을 보기 위해서이다.

물개와 물범들의 《출연》 시간은 30분정도 인데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흥겨운 음악속에 먼저 《무대》에 나선 물범들이 조교사들이 던지는 료를 정확히 목에 끼워 받거나 물속으로 던져진 물건을 재빨리 찾아내는 등 재치있는 동작들을 펼친다.

육중한 몸을 물위로 솟구치며 허공에 있는 공을 치기도 하고 물위에 떠있는 공을 《투사》하여 《롱구 료》안으로 정확히 넣을 때에는 관중들의 박수갈채가 터져오른다.

물범들에게 짝질세라 마이크앞에서 노래하는 흥내를 내기도 하고 춤동작을 펼치는가

하면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나서 《인사》까지 하는 물개들의 모양도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든다.

하기에 공연이 끝났어도 어린이들을 비롯한 관중들은 쉬이 자리를 못 뜬다.

처음 길들일 땐 애를 먹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새로운 동작도 척척 받아문다고 《배우》들을

칭찬하는 이곳의 조교사들이다.

처음 2마리의 물개와 4마리의 물범들이 수행하던 공연은 《신입배우》들이 늘어나는것과 함께 그 인기가 계속 높아가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문진유





재능을 과시한 나 어린 연주자들

평양시 창전거리에 자리잡고있는 경상유치원은 음악신동들이 배출되는 곳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로씨야에서 진행된 제16차 국제축전 《모스크바는 벗들을 맞이한다》에서 이곳 유치원어린이들의 재능이 또다시 과시되었다.

로씨야, 벨라루씨, 도이쉴란드, 프랑스 등 30여개 나라의 어린이들과 함께 축전에 참가한 유치원의 어은금4중주단은 민족악기인 어은금의 독특한 음색과 다양한 연주기법으로 조선민요 《아리랑》 주제의 세계명곡묵음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그들은 11월 29일에 있는 축전종합공연에

서도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공연이 끝난 다음 축전참가자들과 관중들은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고 열싸안으며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조선어린이들의 매혹적인 공연에 관중들이 완전히 넋을 잃었다, 공연을 통해 조선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이런 음악신동들을 수많이 키워내고 있는 조선의 훌륭한 교육제도에 부러움을 금할수 없다, 앞으로 진행되는 축전들에도 계속 참가해주시기 바란다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사진 및 글 김미예



제16차 국제축전 《모스크바는 벗들을 맞이한다》에서 받은 메달들과 상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바둑



바둑이 오래전부터 조선인민들속에서 널리 알려진 민속놀이의 하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고화작품

바둑은 예로부터 조선민족이 즐겨해온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고전들에는 삼국시기(조선의 봉건국가들이인 고구려와 백제, 신라 세나라가 병존했던 A.D. 1~7세기 중엽)에 이미 바둑놀이가 성행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장기의 수가 천수라면 바둑의 수는 만수라는 말이 날만큼 그 수가 매우 다양한 바둑은 오랜 세월 전해져왔으며 높은 급의 지능경기종목으로 인정된 오늘에 와서는 사람들속에서 더욱 널리 장려되고있다.

평양시와 각 도소재지들의 바둑원과 각지의 청소년과외교양기지에 꾸려진 바둑소조 등은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바둑지식과 기술을 습득해가는 거점들이다.

바둑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속에 지금은 바둑반을 운영하는 유치원들까지 계속 늘어나고있다.

해마다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 바둑경기, 소백수상 전국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 바둑경기, 전국어린이바둑경기를 비롯한

전국적규모의 경기들이 조직되는것과 함께 여러 부류의 애호가들을 위한 지역적규모의 경기들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조선의 바둑선수들은 국제경기들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주체81(1992)년 10월 제4차 세계아마추어바둑선수권대회에서 7살 난 최은아가 결승경기까지 진출하여 사람들을 경탄케 하였고

주체89(2000)년 11월 제11차 국제아마추어혼성바둑선수권대회에서 권미현, 림현철이 1위를 하였다. 그리고 주체97(2008)년 9월에는 조대원이 제1차 세계지능경기대회 바둑공개개인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사진 및 글 박영조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발전해 온 바둑은 오늘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속에서 널리 장려되고있다.



제 4차 세계아마추어바둑선수권대회에서 7살 난 최은아가 결승경기까지 진출하여 사람들을 경탄케 하였다. 주체81(1992)년



제1차 세계지능경기대회 바둑공개개인경기에서 조대원선수는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주체97(2008)년



제11차 국제아마추어혼성바둑선수권대회에서 림현철, 권미현선수들이 제1위를 하였다. 주체89(2000)년



신형코로나비루스의 침습을 막기 위하여

국제적인 우려와 불안을 증대시키고있는 《COVID-19》(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를 막기 위한 사업이 고조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한 1월 30일보다 근 1주일전인 1월 24일에 국가비상방역체계가 선포되었다.

그에 따라 중앙과 각 도, 시, 군들에 보건부문만이 아닌 당, 정권기관과 사법, 검찰, 보안기관 등의 책임일군들이 망라된 강력한 비상방역지휘부들이 조직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국경역과 항만, 비행장 등 국경통과지점들에서의 일체 외국인, 외국여행자들에 대한 검병검진과 함께 철저한 격리, 면밀한 의학적감시가 진행되었다. 그 대상은 곧 1월 13일 이후에 입국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로 확대되었다.

다행히도 현재(2월 28일)까지 전국적으로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비상방역지휘부들과 위생방역기관들은 의연히 초긴장상태에 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최기성



석불상



토기그릇조각들



기와조각들



옛 금속화폐와 쇠활촉

새로 발굴된 고려초기의 석불상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와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연구집단이 남포시 온천군 송현리에서 고려(918년~1392년)시기의 석불상을 찾아냈다.

백색 화강석을 가공하여 만든 불상은 높이 235cm, 너비 84~91cm, 두께 22~26cm인 몸체 부분과 5각형에 가까운 통돌을 다듬은 앞면길이 140cm, 측면너비 113cm, 두께 23~24cm인 받침대 부분으로 되어있다.

부처가련꽃을 새긴 받침대 위에 올라서있는 모습으로 형상되어있는 석불상에 대한 조사발굴시 천나무잎무늬가 새겨진

기와조각을 비롯한 고려시기의 기와조각들과 질그릇조각, 쇠활촉, 금속화폐 등 여러가지 유물이 발견되었다.

학자들은 석불상의 비례구조와 옷차림새, 받침대형상 등 여러가지 징표와 발굴과정에 나온 기와조각들의 사용시기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하여 이 불상의 제작 및 건립년대가 고려초기인 10세기 초라는 것을 해명하였다.

사진 신충일

글 정기상

